No.1 시니어 HMO 네트워크
내일의 나를 위한 선한 선택
센터메디컬그룹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December 1, 2023 Vol. 893

2025 라이즈업 탄자니아 전도 축제, 동참 요청

2025 라이즈업 탄자니아(아프리카선교대회) 설명회가 22일 오전 11시에 옥스퍼드팰리스 호텔에서 진행됐다.

2025 라이즈업 탄자니아(아프리카선교대회) 설명회가 22일 오전 11시에 옥스퍼드팰리스 호텔에서 진행됐다. 이 설명회는 한국아프리카선교회 대표인 강신정 목사(논산한빛교회)가 미국을 방문해 남가주 교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열린 것.

이 자리에서 강신정 목사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연유를 나눴다. 그는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던 중 '왜 나입니까?'라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너는 감동을 주면 순종하잖니. 너가 입을 열면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라는 응답을 주셨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면서 "젊은 사람들과 탄자니아에 단기선교를 다녀왔는데, 이중 내년 2월에 4명이 선교를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탄자니아의 4만평 땅을 허락하셔서 간호대학을 짓고 있고 내년에 학교를 지을 예정이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원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목사는 "1년에 1~2번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2025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에도 아프리카선교대회를 위해 주마다 조직이 되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프리카 북쪽에 주로 무슬림들이 많은데 계속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탄자니아와 케냐에서 저지되지 않으면 무슬림들이 계속 내려오게 된다. 선교대회를 통해 복음이 북쪽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프리카선교회는 2025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탄자니아에서 10만명 전도축제를 기획하고 있어서 한국과 미국 교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선교회는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 186개의 현지교회를 세웠고 앞으로 3000개의 교회를 탄자니아(마피아섬, 잔지바르), 케냐, 우간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세우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회건축에 5000달러(약 700만원)가 필요하다고 선교회는 전했다.

강신정 목사는 이번 미주 방문을 통해 주님의영광교회, 남가주새누리교회, 얼바인침례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다. **토마스 맹 기자**

후원계좌: 아프리카선교회/ 농협 351-1075-6039-13 문의:크리스천헤럴드(213-559-7979)

美 목회자, 동성애에 빠졌다가 탈출한 여정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탈동성애 작가 겸 강사이자 목회자인 켄 윌리엄스(Ken Williams)가 기고한 "LGBT 세계를 빠져나온 나의 여정"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켄 윌리엄스는 성경적 가족의 가치를 보호하고, 성소수자(LGBTQ)에 이해와 행동으로 대처하며, 교회와 정부 지도자들이 동성애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단체인 '체인지드 무브먼트'(CHANGED Movement)의 공동 창립자다. 현재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아내와 네 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칼럼에서 "나는 교회에서 자랐고, 여덟 살에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 해 말, 나는 동성애 포르노에 노출됐다"며 "(보이스카우트) 제복을 입은 순진한 소년이었던 내가 겪은 첫 성적 경험은 다른 남자아이들의 손에 넘어갔다. 그 수치심은 영혼을 짓밟았고,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6면으로 계속

정치적 올바름, 교회를 침묵시키는 문화적 압력

1980년부터 미국 시카고 무디교회 담임으로 36년간 재직한 후 은퇴한 어윈 W. 루처 목사의 책 「우리는 침묵하지 않으리라!」(CLC)가 한국어로 번역돼 출간됐다.

부제인 '거짓문화에 용감하게 맞서자'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오늘날 '문화'라는 외피를 입고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인류의 발전을 가져온 고유의 문화를 파괴하는 '거짓문화'를 고발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 가치에 반하는 이런 문화에 맞서 기독교인들이 침묵하지 말 것을 역설한다.

번역은 어윈 W. 루처 목사의 책을 여러 차례 한국에 소개한 모영윤 작가가 했다. 그는 역자 서문에서 "이 책은 전반적인 미국의 병의 근원을 밝히고 있다. 그 주체 세력이 사회주의, 소위 문화막시즘"이라며 "이들이 다양한 세력과 동맹을 맺어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올바름'(PC)의 기치를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그들이 언급하는 단어들을 보면 자유와 평등, 사랑,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끌리지 않을 수 없다"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루처 목사가 이 책을 통해 그 정체를 밝히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루처 목사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의 한 형태인 문화막시즘은 '유대-기독교 도덕'이 아닌 세속주의 가치에 기초한 희망과 변화, 소득 평등, 인종 조화 및 정의를 약속한다. 그것은 배제보다 포용을 공언하고, 성경의 제한적인 성윤리보다는 성적 자유를 증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루처 목사는 "우리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이해하려면 마르크스 자신과 그의 원래 비전에 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그는 새로운 경제, 인종 및 도덕 문화를 재건하기 전에 국가의 특정 기초와 기둥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모영윤 작가는 "이제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자라고 불리지도 않는다. 그들은 소위 '문화막시즘'의 베일로 가리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정의의 사도"라며 "그들은 항상 억압받는 자의 편이라고 한다. 과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들 편이었다. ➔6면으로 계속

어윈 W. 루처 목사. ⓒ무디교회 유튜브 영상 캡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한길교회가 임직감사예배를 27일 오후 3시 30분에 드렸다. 이 날 2명의 안수집사와 7명의 권사가 임직을 받았다. ⓒ기독일보

섬기며 만들어 가는 사랑의 공동체

한길교회(고광선 목사)가 임직감사예배를 27일 오후 3시 30분에 드렸다. 이날 2명의 안수집사와 7명의 권사가 임직을 받았다.

권면을 한 노희준 장로는 "오늘 임직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 선한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 요 1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사도는 이야기 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다. 남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을 세우셨으니 이것을 굳게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노 장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바란다"면서 "모든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직자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며 나가도록 하자. 그럴 때 한길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1부 예배에서는 고광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임직식은 2부 순서로 진행됐다. Gem(색소폰중주단) 윤일중 집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믿음의 고백'이란 제목의 노래를 특송으로 선사했다.

한길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고백하며,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참된 영적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다음세대를 구비시키는 소망 공동체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선교적 사명에 헌신하는 복음의 증인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장신, 퍼플리더십 온라인 세미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미주장신)가 12월 1일(금) 오후 4시 줌(Zoom ID: 626 756 1800)을 통해 여성 리더십을 강조하고자 하는 '퍼플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크리스천 리더십에 집중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기 위해 기획됐다.

'글로벌코칭리더십협회(GCLA)'의 협력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차세대 리더뿐만 아니라 현재의 많은 리더들에게 공감과 격려의 리더십을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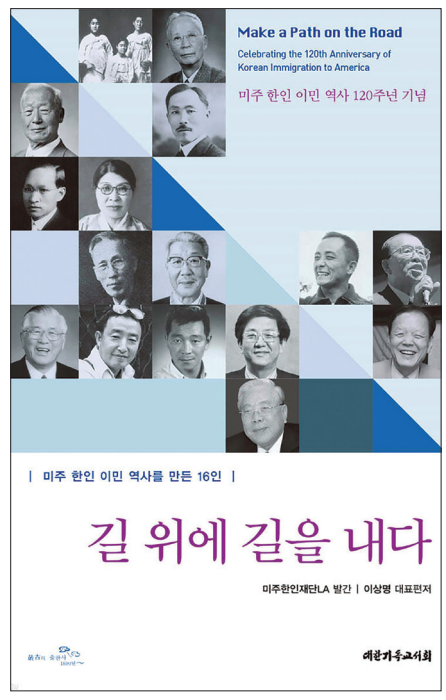
미주 장신은 "퍼플리더십 세미나는 하나님께서 성별에 관계 없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분이 계획하신 위대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드보라와 같은 여성 리더들이 하나님의 군사를 믿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온 것을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주장신은 또 이번 세미나를 통해 '크리스천 코칭리더십의 성지'로 발돋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GCLA 의 국제대표인 피터 정 코치를 첫 번째 강사로 초빙했다.

문의: 미주장신 562-926-1023 (Ext.300)

김민선 기자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분 추천도서 종교분야 9위, 〈길 위에 길을 내다〉



〈길 위에 길을 내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만든 16인〉

〈길 위에 길을 내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만든 16인〉(이상명 대표편저, 대한기독교서회)가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분 추천도서 종교분야 9위에 올랐다.

350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여사(김인수, 괄호 안은 글쓴이), 도산 안창호 선생(김창환), 강영우 박사(김홍신), 임동선 목사(남종성), 이승만 대통령(박정환), 이휘소 박사(박창현),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박현옥), 서재필 박사(송인서), 유일한 회장(옥세철), 이대위 목사(유석종), 작가 김은국 선생(이상명), 경제학자 백일규 선생(이성숙), 새미 리 선수(이예진), 홍명기 회장(이종운 작가), 김계용 목사(임윤택), 하와이 한인이민여성들(최윤정)등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 문학, 예술, 체육, 정치 및 경제, 과학,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16인의 생애와 업적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기념도서의 편집을 담당한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은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다 타계한 인물 가운데 미주 한인 사회와 한국을 넘어 미국과 세계에 공헌한 한인 16인을 선별해 그들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고, 한인이민사를 정리하고자 했다"라며 "한민족의 위상을 더 높여 준 16인의 생애를 돌아보며 한인 사회의 미래를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우리 후세대에 널리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 시 창작 및 노인 학대 예방 세미나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는 12월을 맞아 이용언 시인과 노인학대 교육 관리자 Kimmy Moon를 초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이용언 시인은 12월 4일(월) 오후 12시 10분에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시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시창작 강의를 이끈다.

전 재미시인협회 부회장 이용언 시인은 재외동포문학상과 배정웅 문학상을 수상했고, 시집 〈국경지대〉를 출간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특강을 통해 시니어분들의 내면에 잠재된 시상을 일깨워 시 창작에 이르는 길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Kimmy Moon(한국명: 문보라)는 12월 11일(월) 12시 10분에 같은 장소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그는 USC Keck 의과대학 산하 국립 노인학대 센터 소속 노인학대 교육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18 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시니어센터 관계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시니어들이 정서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한 두 차례 특강에 많이 참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언 시인

Kimmy Moon(문보라)

일시: 이용언 시인 특강 12월 4일(월) 12:10pm
Kimmy Moon 특강 12월 11일(월) 12:10pm
장소: 시니어센터 2층 강당
주소: 965 S. Normandie Ave. #200, LA, CA 90006
문의: (213) 387-7733

“빵점짜리 버림 받은 인생, 하나님 만나고 인생 끝을 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는 11월 27일(월)부터 12월 9일(토)까지 ‘은혜의 대로를 열어 주소서(시편 84:5)’라는 주제로 하근수 목사(동탄 시온교회),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김태권 목사(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 은퇴목사, PCM공동대표) 등을 초청해 연말 특별 새벽부흥회를 개최하고 있다.

부흥회 첫 번째 날 27일, 강사로 선 하근수 목사는, 빵점짜리 인생이던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야기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연말 특별 새벽 부흥회 〈은혜의 대로를 열어 주조서〉 첫번째 날 27일, 강사로 선 하근수 목사(동탄 시온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 “저는 충청도 안면도라는 섬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북한에서 일사후퇴 때 피난 오셨다. 저는 6남매 장남인데 중3 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피난민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동네 분들이 우리가 불쌍하다고, 소년 가장된 우리 집에 푸줏간을 하나 내어주셨다. 푸줏간은 소 돼지 짐승을 사서 도축해서 직접 파는 곳이었다. 그것을 고1 때 어머니와 둘이 했다. 너무 힘들었다.”

그는 한참 이성에 대해서 예민하던 고등학생 시절, 그를 힘들게 한 세 가지에 대해 나눴다.

“가장 힘든 것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돼지를 싣고 갈 때, 우리 반 여학생을 마주치는 것이었다. 돼지가 버둥거리는 바람에, 돼지를 실은 자전거가 시궁창에 빠져 버렸다. 시궁창에 빠진 자전거를 꺼내서 세우려고, 시궁창 물과 범벅이 된 채로 씨름하는데 저 앞에서 우리 반 여학생이 걸어 왔다. 얼마나 창피한지 나도 함께 시궁창에 빠져버렸다. 사춘기 때 여학생에게 들키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두 번째 힘든 것은 돼지와 씨름하니까, 항상 내 몸에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닦아도 냄새가 배어 있다. 뒤에서 더러운 백정이라고 비수를 꽂는다. 조선시대 신분제도를 배우는데, 사농공상, 그중에 가장 천시 받은 직업이 백정이었다. 아이들이 나를 백정이라고 불러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학교에 가서 버벅거리고 숨어지냈다. 고 1,2,3학년이 지옥 같은 삶이었다. 몇 번 죽고 싶었다.”

세 번째 힘든 것은 도축해 놓고 학교에 가야 해서 새벽 5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다. 엄마도 깨우면서 미안하다며 우셨다. 고등학생 때, 새벽 4시, 5시에 기상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문뜩 전율을 느꼈다. 내가 새벽을 통해서 복을 받은 목사다. ‘하나님, 이게 뭐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 새벽기상 훈련,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난받는 것, 10년 20년 후에 축복받으시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친구들이 시험장에 가던 날, 대학은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는, 외롭고 갈 데도 없어 목적지도 없이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다녔다. ‘나는 대학도 못 가는구나’. ‘대학교는 깨끗이 잊어 버리자’라고 다짐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청년 백정이 되었고, 그를 불쌍히 여긴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이 교회로 인도했다.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바뀌었다.

그는 교회를 대학 다니듯 열심히 다녔다. 새벽 일찍 가고, 미친 듯이 예수를 믿고, 차량봉사하고, 속장도 했다. 그가 너무 열심히 하니, 23살에 총각 집사가 되었다. 20대 초반,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는 시외버스를 탔다. 그의 옆 좌석에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앉았다. 처음 본 사이인데 이상하게 그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신 두 마디 ‘사람은 인사를 잘해야 한다’, ‘음식을 나눠 먹어라’ 가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휴게실에서 우유와 빵을 사 와서도 한참 동안 아가씨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고등학교 때 생긴 대인기피증 때문이었다. 용기를 내어 한 마디를 걸었고, 한마디씩 하다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그리고 그 아가씨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정의 눈에 선생님은 너무 고귀한 분으로 보였다.

3년이 흘러 20대 중반이 된 그에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다.

시골 안면도에서 태안까지 와서 친구와 서울행 고속버스 표를 끊었는데, 매표소 직원이 떨어진 자리를 줬다. 당연히 친구와 옆에 앉아서 가야 재밌게 얘기도 하고 갈 텐데, 대인기피증 때문에 표를 바꾸지도 못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었다. 내 옆에 젊은 아가씨가 탔는데 낯이 익었다. 3년 전 만났던 그 자매였다. 하나님께서는 멍청이도 사용하신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빵점짜리 인생도 가치를 두신다. ‘내가 빵점이다, 배운 게 없다, 나는 약하다, 병들었다’면,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개입할 찬스이다.”

“서울까지 가서 자매는 인천 쪽으로,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백정의 눈에 선생님은 위대하게 보였다. 시간이 또 흘렀다. 하루는 안면도 푸줏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찾아오셨다.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머릿속에 내 이름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리고 계속 찾아왔다. 네 번째 찾아왔을 때 청혼했고 자매가 받아들였다.”

그는 장가들고 대학에 들어갔다며, “평생 대학교에 못 갈 줄 알았다. 백정, 천민, 냄새나는 놈, 이게 내 별명이었다. 빵점짜리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 만나고 인생 끝을 냈다.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교회가 부흥되고, 감리교 감독을 지냈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미국에 2번씩 집회를 오고, 올여름에 미국 감리교 목회자들 세미나 훈련하고 방송 진행을 한다. 몸이 두 개 세 개 라도 부족할 정도이다. 하나님이 빵점짜리 인생을 써주신다”고 말했다.

하근수 목사는, “내가 잘나고 명문대 가문이 좋고 훌륭하면 내가 훌륭해서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나같이 못난 천민 백성, 공부도 못 했고, 고등학교 공부할 형편이 안 되어 꼴찌만 했다. 내가 부족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만나고 인생 끝장내시기를 바란다”며 첫날 집회를 마무리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연말 특별 부흥회는 온라인 생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주중 4:30분, 토요일 5:3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한다. 이번 연말 특별 새벽 부흥회의 강사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27-28 하근수 목사, 11/29-30 류응렬 목사, 12/1-2 김태권 목사, 12/4-5 Rev. Joel Kim(웨스트민스터신학교 총장), 12/6-7 Rev. Darin Mcwatters(Fullerton Free Church), 12/8-9 Rev. Alex Choi(Executive Pastor of Imago Dei Church) 주디 한 기자

효사랑 시니어 대학 Art 교실 작품 전시회

효사랑선교회 시니어 대학 Art교실이 오는 11월 30일(목)과 12월 1일(금) 학생들이 가을 학기 동안 배운 미술 작품들을 전시한다.

이날 작품을 판매한 금액은 12월에 있을 멕시코 양로원 선교에 도네이션 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에 출품 된 다양한 작품들은 일상 생활에서 인테리어 효과를 내며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자녀들, 손자 손녀 지인들에게 연말 선물로 주기에도 안성 맞춤이다.

이번 작품을 지도한 엘리스 쌤 화가는 ‘데코파쥬’라고 하는 미술 공예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냅킨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었다. ‘데코파쥬’는 우리가 흔히 쓰는 냅킨이 **아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예**쁜** 냅킨을 이용해 인테리어 효과를 내는 생활소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현대 생활 미술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무, 캔버스, 유리, 섬유, 플리스틱 등 거의 모든 소재에 붙여서 그림을 그린듯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거의 모든 소재에 적용할 수 있어서 생활용품의 리폼 및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에 활용도가 높다.

또한 작품을 구상하고 냅킨을 뜯고 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창의력 개발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다. 특히 시니어들이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쉽게 배우고 만들 수 있는 과정이어서 삶의 활력도 충전할 수 있다. 전시회는 11월 30일(목) 시니**어**대학 종강식과 함께 열린다.

효사랑선교회 시니어 대학 Art교실이 12월 1일(금) 학생들이 가을 학기 동안 배운 미술 작품들을 전시한다.

전시회 장소는 효사랑 시니어 대학으로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는 714-670-8004 / 714-501-0063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https://www.kcrcoc.com/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는 12월 3일(주일) 오후 5시에 교회 본당에서 〈찬양으로의 초대〉를 개최한다.

영혼의 쉼과 회복이 있는 찬양제

지난 9월 24일부터 2023 영혼의 초대라는 제목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남성수 목사)는, 12월 3일(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찬양으로의 초대〉를 개최한다.

12월 24일(주일)에는 이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전교인을 위한 〈성탄 축하의 밤〉을 연다. 소프라노 이보은, 김도희, 바리톤 방 크리스,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OC 필하모닉 챔버 등이 참여한다.

김동욱 기자

https://www.kcrcoc.com/

신발, 과학을 담다, 건강 기능성 신발 '슈올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능성 신발 '슈올즈'(ShoeallS)가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6월 초에 ShoeallS USA를 설립했다.

슈올즈 미주본사는 미 전국에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30여개의 가맹점이 활발하게 영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자본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미주 한인들에게 주어졌다.

"신발, 과학을 담다! (Science Shoes)"를 표방하는 슈올즈 기능성 신발의 핵심은 신발에 장착된 '메디치오' 진동칩이다. 진동칩은 보행시나 정지 상태에서도 1초에 약 30회 진동을 일으켜 진동에너지 SMR파와 베타파를 발생시킨다. 진동에너지는 혈액순환을 돕고 모세혈관을 활성화시켜 세포의 생성을 활성화시킨다. 기 순환에도 영향을 끼쳐 생체 에너지를 촉진시킴으로서 발과 다리의 피로와 어깨결림을 해소해준다. 메디치오 진동칩은 대한민국 의료기 인증 발명특허를 받았으며, 독일 국제발명전에서도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도 바닥창은 천연고무를 사용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중창 역시 탄력성이 좋은 천연고무를 사용하며 충격흡수, 중량감소, 복원력이 우수하여 중력에 의한 체중을 분산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솔은 인벤치오 쿨러시스템으로 공기를 원활하게 순환시켜주며, 파워쿠련이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준다. 슈올즈 미주본사는 LA 한인타운 시티센터(H 마트 건물) 2층에 직영점을 오픈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기능성 건강신발' 슈올즈'(Shoealls)가 지난 6월 LA 한인타운 시티센터에 직영점을 오픈했다. ⓒShoealls

기능성 신발을 판매하고 있다.

슈올즈는 기존에 건강신발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탈피하고, 건강과 패션을 함께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슈올즈라는 이름이 뜻하는 데로 남녀 정장화, 케쥬얼화, 스니커즈, 부츠, 운동화, 등산화, 안전화, 골프화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신발을 건강 기능성 신발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보행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과 발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장시간 서서 일하시는 의사, 간호사, 약사, 마켈 케쉬어, 웨이트레스, 헤어 디자이너, 경비원, 건설노동자, 영업사원 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신발이다. 미 국내 최초로 개점한 슈올즈 LA 직영점을 방문하여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기능성 신발을 경험해 보시길 추천한다.

김민선 기자

미주본사 및 LA 직영점: 3500 W. 6th St. #233 LA CA 90020 (시티센터 2층)

전화: 213-908-6497

웹사이트: www.shoealls.com

이나토미 유이치로 목사 "표적을 구하는가, 기적을 구하는가"

➔ 지난호에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나병환자 치유 사건을 예로 들며,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눅 17장 이런 기사가 나온다. 나병 환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리고 한 사마리아 인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10명이 있었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의 관심은 기적에 있었다. 돌아온 한 사람은 이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기적은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 '돈이 생겨서 괜찮다.' ,'몸이 치유 받아 행복하다.' 물론이다. 그런데 그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신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저희 교회에 계신 가와데 상이라는 분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다. 6년 전에 오신 분이다. 믿지 않던 분이었다. 오시자마자 '저는 암 말기입니다. 6개월 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셨다. 제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다 포기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다. '낫기를 원합니까?' '살고 싶죠, 그런데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다. '그럼 같이 기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비기독교인이라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도해 드려도 됩니까?' '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같이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암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기뻐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이 교회에 다시 안 오셨다."

기적을 체험한 그분께 연락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목사님 저는 바쁩니다.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다시 산으로 가야 합니다. 매주 등산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교회에 못 갑니다."

"2년이 지나서, 그분이 돌아오셨다. 암이 재발하여 3개월 밖에 살지 못하는 몸으로 돌아오셨다. 그래서 병을 낫고 싶으신지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라고 하셨다. '그럼 3개월 후에 죽겠습니까?' '목사님, 더 살고 싶어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신도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약속한다면 저희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적도 일어나야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21간 금식기도였다. 교회 지체들과 21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시작했다. 안 믿는 청년들도 그가 낫기를 바란다며 금식 기도에 동참했다."

가와데 상은 성경공부를 했고, 그는 예수를 영접지만 암수치가 계속 올라갔다. 예배당 두 번째 둘에 앉아서 기쁨으로 찬양했다. 3개월 후 하늘 나라로 갔다.

"저는 자녀가 둘이 있다. 첫째를 위해 하나님께서 3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둘째를 위해 8년을 기다리게 하셨다. 하나님 왜 자녀가 안 생깁니까, 기도하던 중에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아이가 안 생기니까 참 슬프지? 아기 갖고 싶은데 안 생기니까 너무 서럽지? 그것이 사실 내 마음이다. 내가 일본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더 탄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그 마음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음성을 듣고 아내가, '일본에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자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이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합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둘째가 생겼다. 이나토미 유이치로 목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축복이었다고 말했다.

이나토미 유이치로 목사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분께서 들고 계신 엄청난 축복, 엄청난 물질, 아니면 그분 자체로 원하십니까? 그분 자체로 원하시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며 열한 번째 미라클 블레싱 집회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2023.11.12. ~ 2024.02.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To vote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voters shall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11.12. ~2024.02.10.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2024.02.10. 까지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 By 2024. 02. 10.

투표기간 2024.03.27.~04.01.

Voting Period — 매일 08:00~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인터넷(ova.nec.go.kr)

Via Internet website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Report and Register page

ova.nec.go.kr

공관방문·순회접수

Visit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person or file a written application in person with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employee who travels around its jurisdiction

우편·전자우편

By mail or E-mail

※ 해당 공관에 문의

Please contact the relevant Korean Embassy or Consulat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메디컬 서비스**의 **시작**

시니어만을 **전문**으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는 **센터메디컬그룹**이 **유일**합니다

1 시니어 전문 의료 네트워크

2,000명이 넘는 우수한 실력의
의사와 다양한 의료진!

2 남가주 최다 입원 가능 대형 병원

80여 곳이 넘는 병원들에서
편하게 수술 및 입원 치료!

3 초고속 당일 병원 허가서

미국에서 가장 빠른 리퍼럴
시스템과 승인절차!

4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한국인 기사 & 그룹 자체 차량으로
무료 셔틀 서비스 제공!

문의 714-980-3532 cipa@popmso.com

센터메디컬그룹

QR코드를 찍어주세요!
www.centeripa.com

美 목회자, 동성애에 빠졌다가 탈출한 여정 고백

➔1면 기사 '美 목회자, 동성애...' 에 이어서

그는 "13살 무렵에 나는 내 안에서 거부했던 남성성을 외적으로 갈망하기 시작했다. 내가 판단하고 밀어내던 정형화된 남성성을 성적으로 욕망하기 시작했다"며 "남성성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자, 외모가 여성적으로 변해갔다. 14살 때 나는 내가 다른 소년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겁이 났고 망연자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989년에 나는 기독교 서점에 몰래 들어가 동성애를 떨쳐버릴 희망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며 떠났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의지해도 안전한지 몰라, 지하실로 가서 9페이지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며 "분노, 자기혐오, 욕설들을 썼다. 나는 극심한 외로움과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알려지지 않은 내 감정을 쏟아냈다. 그 다음 날, 나는 다시 학교를 마치고 청년부 목사님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했다.

윌리엄스는 당시 자신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었다. 나는 '용기'의 포스터 소년이 될 필요가 없었으며, 깃발을 흔들며 동성애자의 삶의 기쁨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며 "나는 내 죄를 고백할 또 다른 죄인이 필요했다. 나는 고침을 받기 위해 내 죄를 고백할 누군가가 필요했다.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구원자, 나를 깨끗하게 해줄 그 구원자가 필요했다. 내 행위가 아닌 그분의 일하심으로"라고 고백했다.

그는 마태복음 16장 24-25절(TPT)을 인용하며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실로 나를 따르려거든 즉시 너희 자신의 삶을 단번에 부인하고 포기하라. 그리고 너희는 끊임없이 나의 길에 항복하며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너의 것으로 경험해야 한다. 너희가 나의 영광을 위해 자기희생을 선택하고 목숨을 잃으면, 너희는 계속해서 참된 삶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로 선택하면 너희가 지키려는 그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D.C.에서 탈동성애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자유의 행진' 행사가 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윌리엄스는 "예수님이 동성애자나 다른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여정을 시작하셨는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약함 속의 강함이다. 그분은 힘을 주신다. 나는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나온다"면서 "미국 심리학회 및 정신의학협회는 우리를 완전히 버렸다. 교회 전체는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몰랐고, 도움을 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아는가? 항복이다. 완전히 항복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2001년, 목회 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된 새로운 멘토와의 사연을 공유했다. 윌리엄스는 "어느 날 밤, 내 멘토가 기도하면서 나를 인도했다. 그는 한 구절을 말하고 내게 자신의 말을 따라하도록 권유했다"며 "그는 '아버지, 저는 다시 한 번 남자에게서 성적 만족을 얻는 저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라고 말했고, 그 순간 내게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다. 나는 그대로 기도할 수 없었고, 얼어붙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진정한 친구가 한 사랑의 말이었다. 그 순간에도 나는 그것을 알았다. 나는 내 멘토에게 탈출구를 찾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그 멘토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람이 덜 다니는 길로 인도해 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며 "그것이 내게 약간의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그의 행동에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윌리엄스는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한 나의 욕망을 없애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 욕망을 버릴 마음이 없었다. 이것은 멘토가 내게 요청한 힘든 항복이었다"며 "수 년 동안 나도 모르게 남성이 에로틱하다는 개념을 뒷주머니에 숨겨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속으로는 성적 욕망이 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도주할 계획을 잡았다. 14년 동안 예수님께 '이것을 없애 달라'고 간청했지만, 정작 나 자신이 그 부분을 기꺼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편할 때 그분을 따르는지를 생각하며 주말을 보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셨는가, 아니면 나였는가?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라며 "그분은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나타나셨다. 나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나의 유일한 논리적 선택은 항복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 주에 나는 그룹으로 돌아와서 나의 성적인 미래를 주님께 맡겼다. 내 성적 욕망이 어떻게 되든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고, 나의 탈출 계획을 그분께 양도했다"며 "만약 예수님께서 내게 여자에 대한 욕망을 주시고, 내가 결혼하게 된다면, 나는 장래에 성적인 성취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독신 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윌리엄스는 "오늘날 세계와 교회의 절반이 '자아 힘 돋우기, 더 많은 권리, 사랑은 사랑일 뿐, 자신에게 집중하라, 자신을 행복하게 하라'고 외친다"며 "자기만족은 결코 나에게 소용이 없었다. 자기 정체성이 깨진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나의 (탈동성애) 여정에는 롤 모델이 거의 없었고, 그것을 책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결국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권면했다.

김유진 기자

➔1면 기사 '정치적 올바름, 교회를..' 에 이어서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법을 제정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발전된 자본주의에서 그들은 이제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막강한 권력집단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약자를 찾았다. 소위 차별받는 인종, 가난한 자, 가난한 나라,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과거의 역사에서 약자들, 심지어 이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면 누구와도 동맹을 맺고 있다"고 했다. 저자인 루처 목사는 이 책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다.

"지금은 교회 벽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닥친 불길한 미래에 맞서 용감하게 서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준비할 때라는 것."

역자는 다음과 같은 루처 목사의 경고를 겸허히 살펴볼 것을 당부한다.

"우리 교회들이 복음을 표방하고 있더라도,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확장된 우리 주변 문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사랑과 포용의 미덕, 또는 우리의 본질적인 선함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여러분은 밝은 조명 아래서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고, 동영상 자료를 보고 시간에 맞춰 설교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들을지 모르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들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고 우리 증인을 침묵시키는 문화적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한 마디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부끄럽게도 교회는 세속적 좌파를 두려워한다. 인종 차별, 증오, 편견, 동성=애 혐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종교적 견해를 강요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 그래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

그는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 교회와 국가의 죄를 고백해야 할 다니엘의 때"라며 "우리는 행동과 결단, 그리고 전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교회 단신

▶베델교회(김한요 목사)는 12월 2일(토) 오전 6시 본당에서 OICOS((One In Christ On Saturday) 예배를 드린다. OICOS 예배는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신앙을 이어가는 자리이며, 2023 실행위원회 부부, 안수집사, 사역권사가 특별 찬양한다.

▶토렌스 은혜로 교회(김경환 목사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는 12월 2(토) 오후 7시에 창립 20주년 음악회를 연다. 지휘 이병민, 피아노 박선영, 소프라노 클라라 신, 소프라노 김도희, 바리톤 권상욱, 바이올린 민신명, 허윤선, 비올라 한지인 등이 참여한다.

▶토렌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 1church.com)는 한인가정상담소(KEAM: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주관으로 12월 3일(주일) 오후 1시 15분에 EM 예배실에서 〈자녀의 진짜 속마음 알기 세미나〉(Positive Parenting Seminar)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된다.

▶동부교협에서 주관하는 동부지역 연합성탄제가 12/3(주일) 오후 5시에 남가주 주님의교회(최현규 목사) 본당에서 열린다. 주소: 1747 Nogales St. Rowland Heights, CA 91748 문의: 할렐루야한인교회 송재호 목사(909-485-7753)

▶명곡오페라 뮤직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제8회 음악회가 미주평안교회(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에서 12월 10일(주일) 오후 4시에 개최된다. 87세 어르신의 성악, 클래식 공연을 비롯해 가곡과 성탄곡 합창이 이어진다. 문의: 213-605-5810

12월 홈쇼핑윌드 연말선물 폭탄세일

세일 기간 | 2023.12.1(금)~12.5(화)

건강식품, 생활가전, 주방·미용·위생용품 한국산 먹거리 등 제품을 **최고의 가격**으로 드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연말선물 폭탄 감사 세일!!

Immune-11
면역력 향상제품
60캡슐
~~$49.00~~
$10.00 *1인 5병 한정

강원도
홍삼양갱
10개입
~~$29.99~~
$15.00

몽크로스
후라이팬 4구
~~$49.99~~
$24.99

몽크로스
후라이팬 사각 (계란말이용)
~~$49.99~~
$24.99

소백코리아
홍삼절편
10본
~~$54.99~~
$24.99 *1인 3박스 한정

동원
녹용홍삼
1개월 분
~~$99.00~~
~~$89.00~~
$25.00

3W 클리닉
콜라겐
1 세트
~~$85.00~~
~~$50.00~~
$25.00

WOW 특별 파격 스페셜 세일!!

LED
셀라이너
1 세트
~~$165.00~~
~~$100.00~~
$65.00

지리산
상황버섯
1박스
~~$190.00~~
$90.00

몽크로스
헤어 드라이기
~~$259.00~~
~~$129.00~~
$99.00

* LED 셀라이너 1세트 구매 시: 아즐렛 스킨큐어밤 무료증정 *지리산 상황버섯 2박스 구매 시: 종근당 6년근 홍삼 1개월분 무료증정

인기상품 원가아하 폭탄 세일!!

옛날
짱아찌
명이나물
~~$9.99~~
$5.99

옛날
짱아찌
마늘쫑
~~$9.99~~
$5.99

옛날
짱아찌
샐러리
~~$9.99~~
$5.99

옛날
짱아찌
깻잎
~~$9.99~~
$5.99

옛날
짱아찌
고추
~~$9.99~~
$5.99

완도
알멍게
250g
~~$19.99~~
$14.99

바다 장어
400g_2-4마리
~~$29.99~~
$17.99

6제로 플러스
강아지 **사료**
2kg_양_전연령
~~$29.99~~
$19.99

6제로 플러스
강아지 **사료**
2kg_연어_전연령
~~$29.99~~
$19.99

6제로 플러스
강아지 **사료**
2kg_소_시니어
~~$29.99~~
$19.99

6제로 플러스
강아지 **사료**
2kg_연어_시니어
~~$29.99~~
$19.99

안심고급
전기요
M_100*180cm (+-3)
~~$129.00~~
$74.00

안심고급
전기요
L_135*180cm (+-3)
~~$139.00~~
$79.00

홈쇼핑 윌드 HOME SHOPPING WORLD
hsw us .com
youtube.com/tvkoa

LA 올림픽지점 (213)380.3330/3307
3071 W. Olympic Blvd, LA, CA 90006
올림픽 + 아드모어 (구 김윤성 자동차 자리)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OC 부에나팍지점 (714)522.2494/2496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비치 + 멜번 BANK OF HOPE 몰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광고내용 중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매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판매 수량과 세일 가격이 변경 및 제한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a typo i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and the image of this product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store, the sales volume and sale price of the product may be cha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현장영상예배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30
금요영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어와나(AWANA) 주일 오후 2: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비전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com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2:30
EM 오전 11:15
사랑부 오전 8:45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세계 기독교인 납치 사건 90%, 나이지리아서 발생”

기도하는 나이지리아 성도. ⓒ오픈도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납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기독교 단체가 “나이지리아의 취약한 기독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보코하람, 서아프리카 지역 이슬람 국가, 과격화된 풀라니 극단주의자들을 포함한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취약한 납치 대상’로 여겨지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북부와 중부의 기독교 공동체가 특히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릴리스 인터내셔널의 폴 로빈슨(Paul Robinson) 대표는 “테러리스트들은 만연한 납치와 살인을 통해 북부를 이슬람화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집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최근 나이지리아 북부를 방문해 공격을 받은 기독교인들을 만났는데, 그들 중 한 명인 먼데이 알리는 자신의 부재중 집이 풀라니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무장세력은 그의 부모를 살해하고, 형제자매 5명과 친척 14명을 납치했다. 그들은 몸값으로 2천만 나이라(약 3,200만 원)나 칼라시니코프 돌격소총을 요구했다고. 성노예로 잡혀 있는 여동생들과 통화한 그는 “여동생들은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납치범들이 결코 놓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된다. 용서할 수는 있지만 일어난 일을 잊는 것은 참 어렵다. 내 여동생들이 풀려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데이비드 무사(David Musa) 목사도 납치된 뒤 석방을 위해 100만 나이라(약 164만원)의 몸값을 지불했음에도 그가 끝내 살해당했다고 이달 초 모닝스타뉴스(Morning Star News)가 보도한 바 있다.

가톨릭 자선단체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ACN)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나이지리아에서 5,200명의 기독교인이 납치됐으며, 올해 현재까지 23명의 성직자와 교회 직원이 납치되거나 살해됐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연구단체 ‘SBMIntel’은 2022년 39명의 가톨릭 사제가 사망했다고 전했다. ‘종교와 신앙 자유에 관한 영국 내 의회그룹’(APPG)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의 90%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로빈슨 대표는 “이러한 보고서들은 나이지리아가 세계적으로 납치의 중심지가 됐으며, 기독교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려는 시도의 표적 삼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공격 중 일부는 강도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일부는 기독교 지도자와 그 지역사회를 노리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거나 납치됐다. 이는 기독교인을 마을에서 몰아내고 범죄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유엔, 우크라이나에 ‘정교회 보호 부족’ 우려 제기

유엔이 러시아와 연계된 우크라아나 정교회에 대한 종교적 권리 보호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일제 브랜즈 케리스 인권 담당 사무차장은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모스크바 산하의 우크라이나 정교회 단체인 UOC(Ukrainian Orthodox Church)와 독립 교단인 OCU(Orthodox Church of Ukraine)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케리스 대변인은 “지난 2월부터 OHCHR은 서로 다른 정교회 공동체 간의 10건의 물리적 폭력 사례와 6건의 위협적 폭력 사례를 기록했다”며 “우크라이나 법 집행 기관이 부적절한 대응과 우크라이나 정교회 신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케리스는 또한 러시아와 연계된 종교 단체인 UOC를 해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우크라이나 의회의 수정안 초안을 지적했다. 그녀는 국회의 원들에게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지, 국제 인권법을 준수하고 적절한지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러시아군 점령지에서는 러시아가 자체 법률을 적용하여, 소수 종교인들을 제한하고 성직자에 대한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케리스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중재했다.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총회 산하 사회 및 대중 매체/교회 관계 담당 부의장인 박탕 킵시제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우크라이나 정교회(UOC)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정교회(OCU)로 개종하지 않는 신자들이 인권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리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법안 초안이 UOC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방 이사회 회원국들이 UOC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폭력과 위협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 대표는 러시아 연방이 의회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침공을 신성한 전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러시아 점령 지역의 종교적 탄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표는 러시아 정교회가 모스크바의 침략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과 흡수에 참여했다고 비난하며, 종교 단체를 이용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 수정안을 옹호했다. 유엔은 또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1만여 명의 민간인 사망자와 1만 8천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겨울철에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UOC를 대표하는 밥 암스테르담은 최근 전 폭스 뉴스 간판 앵커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처우를 비판하며, 광범위한 진실 탄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UOC가 우크라이나에서 천년이 넘는 역사적인 기독교 지부이며, 5년 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독립 교단인 OCU를 창설했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美 거리 설교 중 총 맞은 전도자, 회복 조짐 보여

(왼쪽부터) 미국 애리조나의 빅토리 채플 피닉스 제일교회의 아웃리치 담당자인 한스 슈미트와 그의 아내 줄야와 딸. ⓒ줄야 슈미트 페이스북

지난주 미국 애리조나의 한 거리에서 설교 중 머리에 총상을 입은 전도자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사고를 당한 한스 슈미트(26세)는 애리조나 주의 빅토리 채플 피닉스 제일교회'(Victory Chapel First Phoenix Church)에서 아웃리치 사역을 담당해 왔다. 슈미트는 지난 15일 예배 전 수요일 밤, 글렌데일의 피오리아의 51번가 모퉁이에 서서 설교를 하던 중 괴한의 총에 맞고 중태에 빠졌다. 게리 마시 담임목사는 22일 수요 예배에서 슈미트의 상황을 교인들에게 알렸다. 그는 "매번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있다. 그는 아직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회복의 조짐은 보이지만 아직 위험을 벗어나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를 응원하고 (그의 아내) 줄야를 격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시 목사는 19일 주일 저녁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총격 사건 이후 "매우 혼돈한 상황이었다"며 "우리는 지난 이틀 밤 연속으로 같은 거리 모퉁이에 대거 나아가 '사탄아, 너는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라 선포했다"고 말했다.

마시는 "우리는 가해자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누구인지 밝혀지고 법질서가 그를 처분하길 기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거리 설교를 결코 그만 둘 생각이 없다.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 길 잃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 그 사역은 우리 교회에서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마시 목사는 "내 말을 믿어도 좋다. 내가 없어져도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보다 더 급진적일 것"이라며 "그 일을 도모하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피닉스 제일교회의 오전 예배 광고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건 현장에는 여러 교회에서 온 100여 명이 모여 설교를 진행하며 슈미트와 뜻을 같이 했다. 예배의 사회자는 "그날 밤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았다. 적어도 두 명은 구원을 받았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회자는 "아마도 80~100명 정도가 여기 네 거리 모퉁이 모두에서 복음을 선포했다"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가해자와 총격 사건의 배경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유진 기자

美 복음주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지" 의회에 지원 요청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지난 27일 의회에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치지도자들에게 촉구하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들은 서한에서 "10월 7일 발생한 하마스의 학살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이 사건은 홀로코스트 이후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유대주의에 맞서고 이 끔찍한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지체 없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많은 신앙 전통을 대표하며 하나의 목소리로 야만과 테러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모였다"면서 의회에 이스라엘 국방자금 지원, 반유대주의 반대 법안 통과, 미국 내 증오범죄 예방 및 처벌 감독 등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하마스와 기타 이슬람 테러조직에 맞서 이스라엘을 방어할 것을 촉구하고, 유대민족 및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확인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기습 공격을 감행한 후 이스라엘에서 1천2백 명 이상이 사망하고 6천9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서한에서 이를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 민족에 대한 가장 심각한 학살로 묘사했다. 이어 "이 끔찍한 테러로 미국과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 시위가 일어났다.

우리는 이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서한에 서명한 자들과 같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형제자매들의 편에 서고 있다. 유대인들은 미국 내 종교에 기반한 증오범죄 중 절반 이상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앙과 배경을 가진 미국인들이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서한을 통해 우리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하나 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 미국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고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흔들릴 수 없다"고 했다. 이 서한에는 신앙자유연합(Faith & Freedom Coalition)의 랄프 E. 리드(Ralph E. Reed) 회장, 티모시 헤드(Timothy Head) 전무이사, 제임스 돕슨 가족연구소의 제임스 돕슨(James Dobson) 회장, 텍사스 댈러스 제일침례교회의 로버트 제프리스(Robert Jeffress) 담임목사, 리버티대학교의 조나단 파웰(Jonathan Falwell) 총장 등이 서명했다.

지난 10월에도 남침례교단 지도자들과 수십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하마스의 공격을 비판하고,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와 의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성명에 서명했던 랜드 박사는 "나는 유대인 친구들 몇 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불안해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잔혹한 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분노와 비난이 나오지 않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마스는 테러조직이다. 나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적어도 나치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마스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야만적인 행위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ZOO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평양 봉수교회의 불편한 진실

강 석 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평양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의 설립 계기는 매우 다르다. 칠골교회는 김일성과 그의 모친 강반석과 그의 친정 지계들이(강돈욱. 강양욱) 개척했고 섬겼던 교회였기에 김일성이 말년에 그 교회 자리를 찾아내어 재건시킨 교회였지만, 봉수교회는 1989년 '세계학생청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보이기 위해 세워진 교회였다.

이 교회는 평양의 가장 상징적 교회로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의 장대현교회(사무엘 마펫)가 1938년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폐교함으로 사라진 후, 지상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로 볼 수 있다. 북한 공산정권은 대외적으로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관제 어용교회인 봉수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2천 년대 들어서면서 북한과 한국과 관계가 화해 시대가 되자 한국교회는 낙후되어 버린 봉수교회 건물을 약 6백만 불의 건축비를 지원하여 크게 재건축 하였다. 이 교회의 모든 기물들은 한국교회와 해외 동포 교회의 헌물로 채워졌고, 종종 미주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방문 시에 설교하도록 허락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그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가져보게 된다.

이 교회에 대해 2016년 탈북해 한국에 온 태영호 영국 공사관 출신인 그가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본인이 평양에서 직간접적으로 들은 봉수교회 이야기를 〈태영호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에서 이같이 증언하였다.

"1988년을 고비로 평양에는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이 건설되었다. 그런데 교회나 성당을 평양에만 세우고 지방에는 짓지 않는 이유가 있다. 원래는 원산이나 강계 등 지방 주요 도시에 종교 시설을 건설하려던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은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관리가 안되기 때문이었다. 북한에서 교회가 있으려면 목회자와 가짜 교인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당이 양성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을 세울 수 있지만, 가짜 교인은 교통 관계상 교회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선발하여야 했다.

그래서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근처에 거주하는 간부 부인들 중 '빨갱이 여성들' 200명을 뽑았다. 진짜 교인이 생길 요소를 미리 제거했다. 이들이 주일에 참여하는 데에는 참석률이 낮자 출석부를 만들어 감시하였다. 출석이 저조한 사람들은 총화에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사상교육도 시켰다. 그들이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교회나 성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투쟁 활동이다. 미제와의 반미 성전에 떨쳐나선 남조선 종교계 인사들을 쟁취하기 위한 , 그리고 조국의 통일을 위한 숭고한 투쟁이다."

약 2년이 지나면서 출석률이 높아졌다. 이들은 교회에 나와 함께 찬송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믿음이 생기면서 교회 분위기도 달라졌다. 어느 열심 교인은 예배 두 시간 전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열성분자들이 생긴 것이었다. 더 놀라운 일이 목격되었다. 교회에서 찬송가가 들려 오면 청년 몇 명이 나타나 교회 담장에 기대어 무언가를 열심히 적는 것이었다. 보위부가 그들을 체포하였다. 놀랍게도 평양음악대학교 작곡반 학생들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찬송가를 들은 그 학생이 음대 친구들에게 알렸지만 예배당에 들어 갈 수 없자, 친구들은 교회 담장에서 찬송가의 곡조를 채보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 목격된 사례도 당으로서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그 옆길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배 시간 11시에 교회 근처에 수백 명이 나타나 교회를 바라보며 눈을 감고 있었다. 12시에 예배가 마쳐지면 모두 사라졌다. 보위부가 이들 일부를 잡아 조사해 보니 기독신자들이었다. 김일성은 조선에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없다고 확신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강태광의 기독교 문학 산책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헤르마스의 목자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헤르마스의 목자〉는 2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고대 기독교 문서다.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일부 학자들은 저자를 로마의 감독 피우스의 형제라고 주장한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한국교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속사도 교부 문헌이다. 그 이유는 성경의 정경이 확정될 때 거의 신약 성경에 선택될 뻔했고 그 내용도 기독교 교회사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초대교회가 귀하게 다루었다.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리고 오리겐은 〈헤르마스의 목자〉를 성경으로 받아들였다. 터툴리안과 4세기에 아타나시우스도 잠시 헤르마스 목자를 성경으로 인정했다. 초대교회는 대체적으로 〈헤르마스의 목자〉를 성경으로 인정했다. 2, 3, 4세기 교회는 이 〈헤르마스 목자〉를 신앙생활에 유익한 자료로 애독했다.

결국, 〈헤르마스의 목자〉가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정경 기준에 거의 근접한 문서였다는 사실에 큰 이견이 없다. 2세기와 3세기의 여러 문헌에서 〈헤르마스의 목자〉를 영감 있는 서적들 목록에 올려놓았다. 비록 이 책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후기 사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헤르마스의 목자〉가 정경에서 제외된 이유는 그리스도론(기독론) 때문으로 추측한다. 속사도 교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현설과 영지주의의 이원론 모두를 거부했다. 그런데도 속사도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관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지 못했다. 〈헤르마스의 목자〉에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성령이 성육신하였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헤르마스의 목자〉를 처음에는 정경으로 인정했던 아타나시우스가 〈헤르마스의 목자〉를 정경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경 결정 기준은 첫째 영감성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문서이다. 둘째, 목적성으로 기록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뜻에 부합되어야 했다. 셋째, 신뢰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인간 저자의 진실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넷째, 보편성으로 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보존성으로 문서가 성령님의 간섭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야 했다.

〈헤르마스 목자〉는 5개의 환상(Visions), 12개의 계명(Mandates), 그리고 10개의 비유(Parables)로 구성되어 있다. 천사가 헤르마스에게 보여준 환상들과 이에 대한 설명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비유 형태로 구성된 설명들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가르침들이 포함되어 있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요한 계시록처럼 목자가 나타나 헤르마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다. 헤르마스는 노예에서 해방된 상인이었다. 첫 번째 환상은 헤르마스가 로데라는 부인의 노예로 로마에 팔려갔다가 해방된 이야기로 시작된다. 어느 날 헤르마스는 옛 주인, 로데 부인이 티베르강에서 목욕 장면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했다.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며칠 뒤 헤르마스가 쿠메로 향하던 중 옛 주인이 하늘에서 나타나 그가 마음에 품은 생각이 간통과 다르지 않음을 알려 주었다.

두 번째 환상은 1년 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 노파는 헤르마스에게 편지를 베껴 쓰게 하고 환상들을 로마 교회와 다른 여러 지방에 알리라는 명령과 함께 작은 책 "하늘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세 번째 환상은 젊어진 노파가 헤르마스에게 교만을 상징하는 탑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통해 완전해질 때까지 탑의 완성은 연기되리라고 말했다.

문학 형태로 볼 때 〈헤르마스의 목자〉는 묵시록이며 그 주제와 가치는 회개론이다. 헤르마스는 원시교회의 뜨거운 열정을 지키려고 하였으며 일거에 회개할 기회를 현시점에서 선포했다. 그 환상은 오늘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마 이런 이유로 현대 교회가 '헤르마스의 목자'에 무관심한지 모른다.

〈헤르마스 목자〉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비는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우에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또 세례를 받은 후 단 한 번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서 죽음 직전에 가서야 세례를 받는 다소 황당한 풍습을 제시한다. 이런 가르침은 보편적인 교회의 관습이 되기에 어려웠지만, 개종한 그리스도인 세례 교육의 강화와 회심을 명확하게 하는데 이바지한 문서였음에 틀림이 없다.

또한, 〈헤르마스의 목자〉는 로마 제국에 있는 그리스도교인들을 위해 결혼과 이혼, 부와 돈과 시민권 등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소 경직된 규칙들과 훈계들을 담고 있다. 예컨대 〈헤르마스의 목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혼한 이후에 재혼을 금한다. 그리고 결혼을 했든지 결혼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sex)생활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기조다. 아마도 당시 만연한 타락한 문화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속사도 교부들과 교부들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들은 금욕적 신앙생활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런 시대 정신을 반영한 〈헤르마스의 목자〉는 성도의 삶에 물질의 유혹에 대한 투쟁, 두려움, 자기 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공헌은 3-4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이며 금욕주의적인 삶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책은 고도의 도덕적인 삶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강조한다. 〈헤르마스의 목자〉의 구원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이 기록되었던 2세기 이후 교회가 진정한 회개를 포함한 새 삶을 강조하는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헤르마스는 신앙인의 삶이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관심을 두었다.

2023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캠퍼스 수업
■ CANVAS 기반 온라인수업
■ 실시간 화상수업
■ 온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학자금 지원 (Cal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사회복지학, 글로벌영성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원목집중과정, 목회학 코칭집중과정, 상담심리학, 선교학, 결혼가족치료학, 전문코칭학, English M.Div.
■ 박사 | 선교학박사, 선교학철학박사
주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100% Made in USA

SCAN ME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Zero Down Payment (PPA)
- 전기료 50~90% 절감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 전기세 50~90% 절감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세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김귀보 목사의 본문이 이끄는 네러티브 설교

실수를 통해 배우라 (수 2:1~14)

김 귀 보 목사
달라스 큰나무교회

역사학자인 E.H Carr는 『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History i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라는 말을 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자기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보통 사람이고, 타인의 실수를 보고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명의 정탐군을 여리고로 보냈다. 1절을 보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정탐군을 보내는 모습은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군을 보내는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40년 전에는 각지파에서 한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정탐하러 보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뽑은 두 사람만 보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는가? 여호수아는 과거의 12 정탐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40년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뽑은 두 사람만 정탐군으로 보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군을 보낸 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두려움과 불순종으로 시작된 일이었다. 그 결과는 실패였다. 신명기에 보면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21.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신1:21-22)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다. 그런데 전쟁이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정탐군을 먼저 보내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그럴듯하게 가져다 붙였다. 효과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미리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었다.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서 허락을 했다. 그런데 정탐군들이 돌아와서는 말을 바꾸어서 정복하러 가지 못하겠다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두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다양한 지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더 잘 볼 수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특히, 자신의 욕심, 두려움, 의심, 탐심, 이기심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고 나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 목소리를 낸다. 더욱이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거나, 전문가면 문제가 더 커진다.

12명의 정탐군이 본 것이 무엇인가? 적들은 크고 두렵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것이다. 정복할 수 있는 이유를 본 것이 아니라 정복할 수 없는 이유를 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적들을 본 것이다. 자기 눈으로 보고 나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생각을 안 바꾸었다. 그리고 그들이 각 지파의 대표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지파의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정탐군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렌즈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가 가진 비전과 믿음과 생각을 대신 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호수아는 누구를 정탐군으로 보냈겠는가? 자기와 같은 믿음과 생각과 시각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 여호수아의 눈과 귀가 되어서 대신 정탐을 하고 오라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는 필요가 없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많아야 한다. 자기 주장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사용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지을 그림은 보여주셨지만 모세에게는 지을 지식과 기술이 없었다.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게 했다.(출31:1-11) 전문가들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묵상해야 한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운 또 한 명의 사람을 발견한다. 바로 기생 라합이다. 이 이야기에는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 번째는 왜 정탐군들이 기생집으로 갔을까? 두 번째는 라합은 왜 적국의 정탐군들을 숨겨주었을까?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왜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번째, 정탐군들은 왜 기생집으로 갔을까? 당시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도시였다. 외국과의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출입이 잦았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아간이 훔친 물건 중에 "시날산 외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바벨론의 상인들까지 여리고를 드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수7:21) 여리고에는 이런 상인들이 묵을 여관이 많이 있었다. 여관은 모든 정보의 나눔터다. 누구 집에 아기는 태어났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 그리고 국제적인 정보까지 다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외국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자기 몸을 숨기기에는 이곳 보다 안전한 곳이 없었다. 라합의 집은 단순한 기생집이 아니라 상인들이 묵어가는 여관이었을 것이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라합을 여관주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계속)

상담심리 칼럼

관계의 회복, 경청이란 선행에서 시작

이 제 니 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디렉터

독일의 심리학자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쉬가 쓴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으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가 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해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여기는 데에서 온다고 한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거나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남의 말을 경청해서 듣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워지고, 남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꽤나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며 삶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최근에 발표된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2022년 동안 5만여 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진 통계가 있다 (여성가족부, 2021).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서로 간의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경험도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족의 관계가 각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족 관계가 회복될 때 이로써 스스로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 그 작은 선행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지니스

aga MEDICARE OPTION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신비의 침술, 놀라운 쑥뜸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뜸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래이너 역임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믿음은 타협이 아니라 순종이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레밍효과(레밍신드롬)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형태를 무작정 따라하는 집단행동 현상을 말합니다. 레밍은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사는 설치류의 일종으로 몇 년마다 거주지를 변경하는데, 한번 거주지를 정하여 정착한 뒤 개체 수가 늘어나서 거주지가 좁아지게 되면 다른 거주지를 찾아 움직입니다. 이때 레밍들은 앞만 보고 따라가다가 절벽을 만나거나 호수를 만나 우두머리가 떨어지면 그대로 따라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1서2:15-16)

세상에서 온 것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반대 개념으로의 '세상'은,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자기 욕망대로 살라"입니다. 세상의 욕망은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해서 누가 어디 놀러갔다 오면 나도 가고 싶고, 누가 어떤 옷을 입으면 나도 사게 되고, 누가 뭘 했다고 하면 나도 따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그네처럼 잠시 사는 세상은 타협이나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이길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인 자녀가 세상을 보고는 '몸에 나쁜 불량식품 먹게 해주세요, 학교 안 가고 놀게 해주세요, 연애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해도 참된 부모는 망하는 길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세상을 따라 구하는 내 욕망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인 내가 'Not I But Christ'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욕망으로 경쟁, 자랑, 뛰어남이 목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발견한 후부터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롬1:1)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게 된 바울은 소명과 사명을 확실히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사명을 따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빌3:14)

바쁘고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헷갈리는 이유는 소명과 사명이 없거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정당함과 공평함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는 사명이 먼저임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며 '난 부당해서 못해요, 억울해서 못해요.' 정당함이나 공평함을 먼저 구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확실하면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는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확실한 믿음은 타협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샬롬!

구봉주 칼럼

선교적인 삶을 마무리하며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올 2023년을 선교적인 삶이라는 주제 표어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정한 표어 그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올해에 선교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것은 팬데믹 때에 있었던 뜻밖의 이에 기인합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근심하고 있을 무렵,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아주 큰 액수의 헌금을 하시면서, 미국을 안식년으로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다녀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머물 숙소를 구입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그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존경스런 우리 감사한인교회 장로님들께서는 흔쾌히 그 제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루도 비는 날 없이 수많은 선교사님들께서 편히 쉬시다가 다시 선교지로 복귀하셨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께서는 이렇게 좋은 선교관에 그것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했다는 편지를 보내오곤 하십니다. 그런 감사편지를 불과 몇일 전에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관을 구입할 그 무렵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려울수록 더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감동을 주셨고, 때마침 창립 40주년인 올해 2023년을 "선교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 저희 감사한인교회는 선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사님 내외분들께 비행기 티켓을 포함한 모든 경비를 지원하여, 초청하였고, 간증을 듣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감사한인교회는 다시 정기적으로 선교를 후원하는 선교적 삶을 시작하신 헌신적인 성도님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감사한인교회는 아프카니스탄 무슬림 선교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시작했던 아프카니스탄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오래 전 아프카니스탄에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을 후원하는 구제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테러단체의 위협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아프카니스탄 선교는 종지부를 찍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탈레반의 위협 때문에 견디지 못한 아프카니스탄 난민들이 터키 땅으로 이주해 오는 바람에 복음 전도가 원활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오래전 아프카니스탄 선교사님으로 수고하셨던 노광조 선교사님 내외분을 터키로 파송하여서, 무슬림 난민 선교를 시작하였고, 탁요셉 선교사님 내외, 백준호 선교사님 내외도 재정적으로 후원하며, 세 선교사 부부들이 동역하시는 선교단체인 RZM 선교회와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고, 교회들을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아프카니스탄 난민 사역자들을 미국과 캐나다로 초청하는 후원회를 조직하였고, 계속해서 북미로 들어오는 아프카니스탄 난민들을 위한 교회개척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슬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이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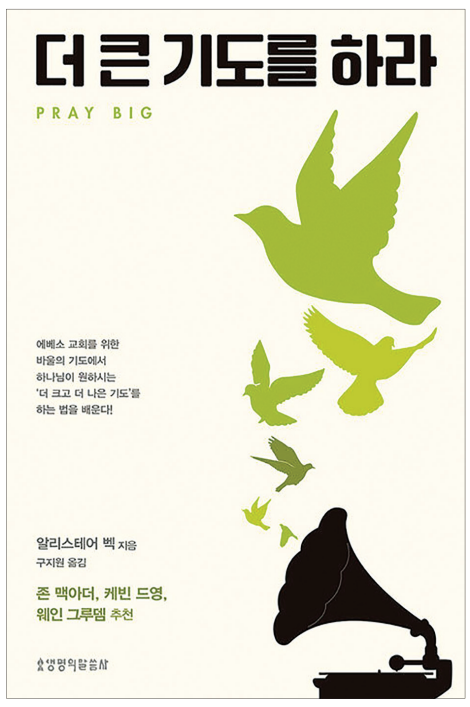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올 초부터, 기독일보가 주최하는, 작은 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We bridge 사역에 동참하여, 세 교회를 매달 500불씩, 3년 동안 후원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We bridge 사역의 일환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를 후원하였습니다. 장소와 식사 재정으로 후원하였고, 이 일에 김영길 원로 목사님께서 수고하고 계시는 TMF가 크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 행사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목회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과 사모님들이 위로받으시는 모습에 얼마나 가슴이 뛰고 뿌듯하던 지요.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앞으로도 주위의 작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협력하고 섬기는 지역 선교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은퇴한 시니어 성도들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돕기 위해, 캄보디아 예수 마을 선교를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몇몇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우 빈곤한 나라입니다. 캄보디아 김창훈 선교사님께서는 10년 가까이 현지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제자들을 키우고,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은 공부를 해도, 지역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 안에서 함께 일하는 "예수 마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물과 농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마을은 누구든 자신이 해오던 일, 자신의 전문 분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인교회는 예수 마을 후원과 동참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최근에 예수마을후원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내년 1월말에 2주간 선교 답사팀을 조직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한인교회 시니어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섬긴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찰 따름입니다.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한인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분명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선교적인 삶에 동참하십시다.

[더 크게 기도하는 법]

‘더 깊고 본질적인 기도’란 무엇인가?



더 큰 기도를 하라

알리스테어 벡 | 구지원 역 |

생명의말씀사 | 136쪽 |

11,000원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1세기의 사도이자 전도자,
교회 개척자이자 신학자인
바울의 기도에 초점을 맞춰 보라.

이 책은 에베소서 1장 15–23절과
3장 14–21절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에
주목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간구했는지
살피면서, 바울처럼 더 큰 기도,
즉 깊이 있고 본질적인 기도를 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한다.

알리스테어 벡을 처음 접한 것은 2015년 부흥과개혁사에서 출간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읽었을 때다. 싱클레어 퍼거슨과 함께 쓴 이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풍성한 영적 매력에 푹 빠진 경험이 생생하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파크사이드 교회 담임목사이자 라디오 및 온라인 강사로 전 세계 기독교인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교사인 알리스테어 벡의 책은 생각보다 한국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두란노, 2022), 〈여름날 말씀 묵상〉, 〈가을날 말씀 묵상〉(생명의말씀사, 2022) 이후로 가장 최신작인 〈더 큰 기도를 하라〉까지(생명의말씀사, 2023), 총 다섯 권 정도가 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처럼 보이는 알리스테어 벡은 사실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는 많이 알려진 설교자 및 저자이다. 〈더 큰 기도를 하라〉를 추천해 준 크리스토퍼 애쉬, 존 맥아더, 웨인 그루뎀, 케빈 드영,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름만 봐도 벡이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컨퍼런스 강사로도 자주 초대된다.

처음 원서로 《Pray Big》을 접했을 때는 분량이 적당하면서도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번역서로 만나 더 깊이 묵상하며 읽어보니 기도에 관한 저자의 고찰이 생각보다 깊고 의미 있으며 실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는 추천사에 “당신의 마음에 다시 한 번 기도의 불을 일으킬 책이 여기 있다”고 평가했다.

기본적으로 〈더 큰 기도를 하라〉는 에베소서 1장 15-23절과 에베소서 3장 14-21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문으로 삼아,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더 큰 기도가 될 수 있는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께 드리는 더 크고 의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소개한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기도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태도, 영적인 것이 먼저 오는 우선순위,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 달라는 간구,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지각, 풍성함과 능력을 구하는 요청, 사랑을 실천하려는 태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알리스테어 벡은 노련하고 실력 있는 교사답게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 가사를 적절히 사용하고, 길고 지루한 내용이 아닌 짧고 명료한 내용으로, 각각의 장에서 강조하는 기도의 특징을 분명히 각인할 수 있도록 힘있게 선포한다. 사실 기도를 다룬 책은 많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만큼 유용하고 은혜로운 방편은 없으며(말씀 외에), 또 기도만큼 꾸준히 하기 힘든 영성 훈련 도구도 없다. 그래서 기도를 돕는 안내서와 설명서가 참으로 많다. 그러면 알리스테어 벡이 쓴 〈더 큰 기도를 하라〉가 주는 이점은 무엇일까? 왜 이 책이어야 할까?

첫째, 저자 벡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울의 기도문을 근거로 더 큰 기도의 특징을 설명한다. 개인의 지혜나 학문적인 견해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와 의미를 담아 전달하는 교훈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저자는 ‘더 큰 기도’, 그러니까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기도를 논한다. 우리는 쉽게 기도의 특별한 기술이나 합당한 내용을 고민하는 것으로 기도를 배우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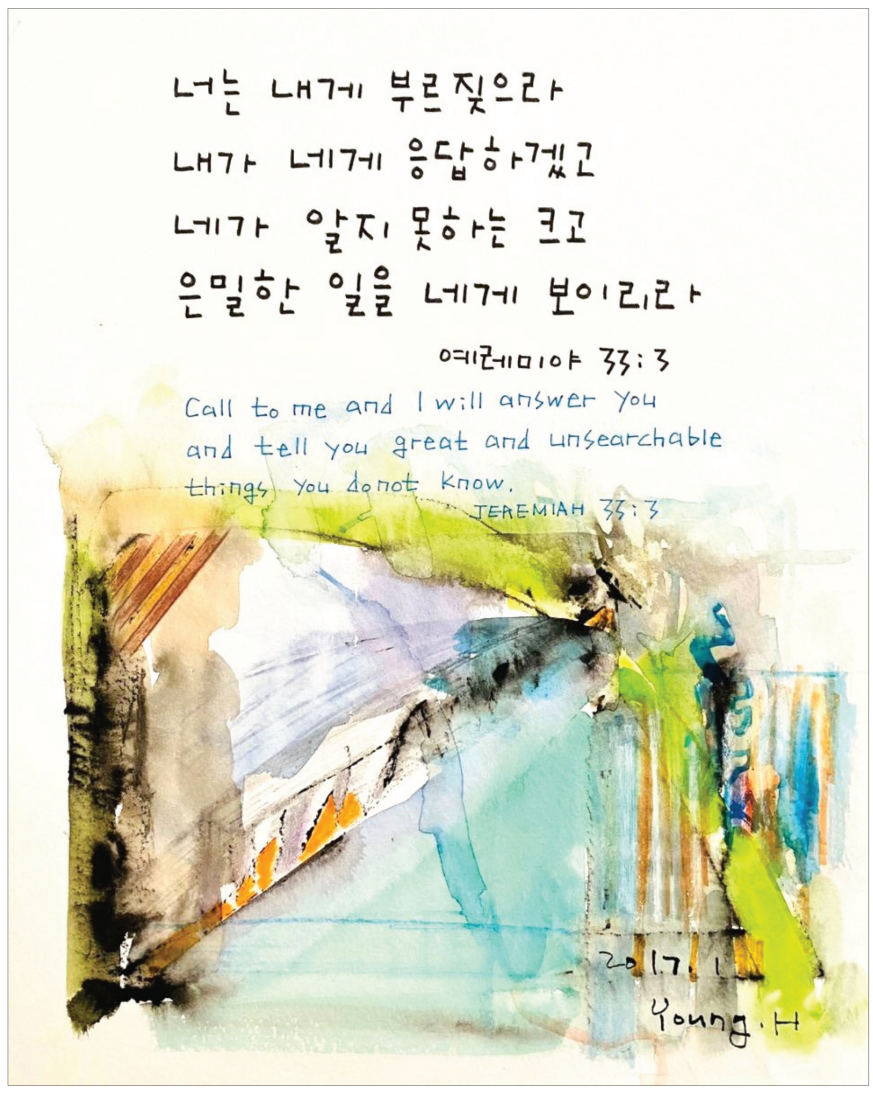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문장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 셋째, 바울의 기도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도가 갖춰야 할 영적 시각으로 요구된다. 기도를 다루는 책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요청으로 구분되곤 한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할 것은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무언가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베풀어 주실 은혜까지 확장된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다. 저자는 바로 이런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기도에 더해준다. 넷째, 저자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그 충만한 사랑을 힘입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픽사베이

웨인 그루뎀은 “이 책을 읽기 시작한 후 어느 아침, 나는 더 큰 기도를 하라는 알리스테어 벡의 도전 덕분에 나의 기도 생활이 훨씬 풍성해지고 깊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미야자키 하야오 (3)

성경과 크게 다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전개 방식

포스트모던 연출법 따라하면서
거대 서사 약화 후 미시 서사만
이런 풍조, 성경 접근에 장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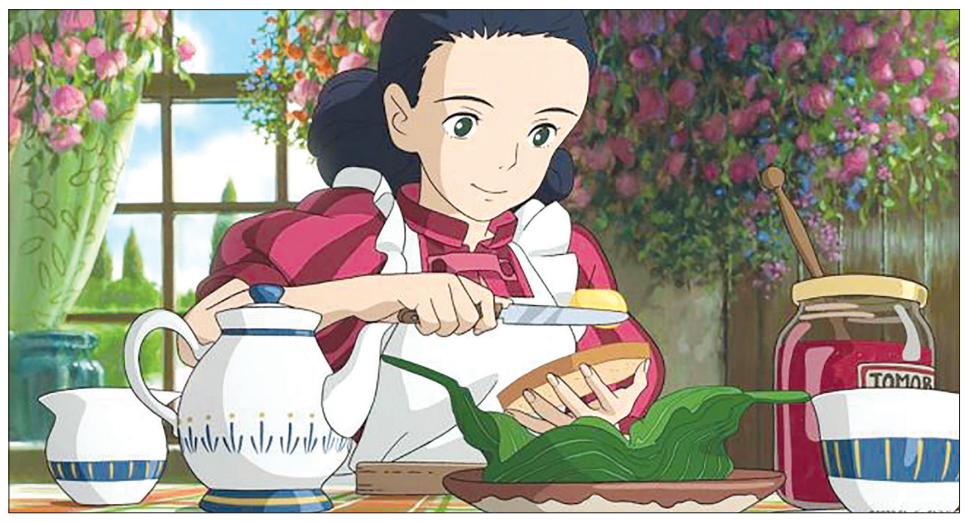
◈포스트모던 연출기법: 다층성과 감성적 자극에 주안점을 둔 포스트모던 연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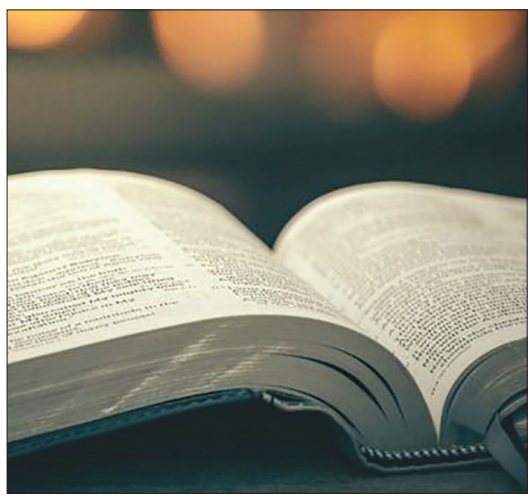
최근 상업영화의 주요 트렌드 가운데 하나는 거대 서사(meta-narrative)를 해체하기 위해 미시적이고 다층적인 하위 내러티브들을 얼기설기 엮어내는 포스트모던 연출 기법이다. 기승전결과 주제의식이 뚜렷한 전통적 픽션 서사와 달리, 포스트모던 연출에 바탕을 두고 구성된 서사는 캐릭터와 장면 간 연결성이 모호하고 복잡다단한 감각적 자극을 선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포스트모던 연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전체 줄거리는 어린 시절 미야자키 감독의 삶을 투영한 주인공 마키 마히토의 행적을 중심으로 펼쳐지지만, 막상 각 장면에서 극을 이끌어 가는 중심인물은 마히토가 아니라 마히토와 엮인 주변 인물인 경우가 많다. 이런 연출법은 이 작품에 대한 관객의 호응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일반 관객 입장에서, 특히 애니메이션 영화의 주된 관객인 어린이 관객들 입장에서 마히토의 관점을 중심으로 일관된 서사를 전달하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기 편하다. 하지만 이 작품은 요괴, 영물, 인간(그것도 과거와 현재 시점이 뒤섞인 인물상)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 서사의 중심을 계속 가로채다 보니, 관객이 어느 장단에 맞춰 줄거리를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이 작품의 서사를 구성하는 각각의 미시 서사에 깃든 영상미와 음악효과, 그리고 분위기의 강렬함과 화려함 역시 서사를 파편화하는 데 일조하면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줄거리를 파악하려는 관객들의 기대를 외면한다. 하지만 이는 연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연출 기법이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의도대로 자율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대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끌려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서사전개 방식은 20세기 중후반 이후, 특히 1930년대 실존철학의 학문적·문화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시점부터 문학을 포함한 예술계에서 널리 활용되어온 것이다. 미야자키 감독은 이런 식의 연출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흥행에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스튜디오 지브리에서는 애초 본 작품의 흥행 성적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 작품은 현존하는 애니메이션계 최대 거장인 미야자키 감독의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미야자키 감독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채택한 이런 포스트모던 연출기법은 일본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구시대적 전체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 이 양 극단에 걸친 인간관계의 문제를 되짚어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연출법은 사상적 깊이를 담아내는 데는 제격이지만, 관객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지난 10월 두 주간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거대서사와 미시서사의 확고한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bible-society.org

◈성경의 서사 기법: 거대 서사와 미시 서사의 확고한 조화

이처럼 미시 서사를 통해 거대 서사를 해체하면서 감성적 인상을 깊게 남기는 메시지 전달 방식은 오늘날 음악·영화·드라마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만 대중문화 장르별로 활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자들이 포스트모던 연출법을 상업성·대중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음악 제작자들은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짧은 음원 재생시간 안에 강렬한 인상을 주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 연출 기법은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감각적 예민함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장면 간 서사 부조화를 감성적 조화로 보완해야 하기에 각 장면에 담긴 영상미·음향효과·감흥을 극대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이에 따라 해당 콘텐츠 소비자들로 하여금 감성에 충실한 문화적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기법에 익숙해진 세대는 미시 서사들 사이의 치밀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거대 서사를 쌓아나가는 전통적인 서사 전개 기법에 갑갑함을 느낀다. 기승전결이 확실한 고전적 서사전개 기법은 절정 단계에 이르기 전 발단, 전개, 위기의 세 단계를 거쳐 서사를 쌓아 나가는데, 포스트모던 연출의 변칙성에 익숙해진 이들은 촘촘하게 짜여진 전통적 서사전개 기법의 빌드업 과정에서 절정 수준의 감성적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지루함을 느낀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사 전개의 속도감이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흥행의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지목된다. 서사의 내부적 연관성이나 개연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각 장면에서 고강도의 감성적 자극이 빠른 속도로 연달아 이어지면, 독자, 관객 혹은 시청자들은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해당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게 된다.

성경은 거대 서사와 미시 서사 양측이 서로 확고한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성서 기자 각각의,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경험들 각각의 미시서사들은 좁게 본다면 서로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부분적으로 포스트모던 서사의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각각의 미시서사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섭리를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전통적 거대 서사의 특성 또한 발견된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감성과 지성 양측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알리는 서사의 힘을 갖추고 있다. 즉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성경 속 거대 서사와 미시 서사 양측을 조화롭게 수용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런데 최근 대중문화 미디어 동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포스트모던 연출법의 영향력이 점차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거대 서사에 대한 이해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자칫 성경을 읽을 때도 파편화된 미시 서사에만 집중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최근 한국교회의 설교나 신학적 견해들을 살펴보면 이런 문제점이 자주 목격된다. 성서의 일부 미시 서사만을 근거로 들어 보편구원론에 가까운 견해를 제시하거나, 자율적인 성적 정체성과 성적 결정권을 옹호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성서 전체의 거대 서사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미시 서사가 주는 국소적 교훈만을 절대화하는 식으로 사견을 정당화한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면 미시 서사를 촘촘하고 치밀하게 연결해 거대 서사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전통적인 서사의 문법 대신, 미시 서사를 군집 형식으로 모아놓고 감성적 자극을 일으키는 여러 효과들로 빈틈을 채우는 새로운 서사전개 방식이 대중문화계의 대세로 굳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애니메이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중문화 속에서 확인되는 사고방식 전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현 시대 문화풍조가 경험과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일관성보다는 잡다함과 다층성을 중시하고, 합리성 확보보다는 감성적 자극과 만족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포스트모던 연출방식을 통해 확인된다. 이런 풍조는 오늘날 젊은 세대가 성경의 가르침에 익숙해지는데 하나의 큰 문화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설교학에서는 내러티브 설교 기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러티브 설교 기법은 그 자체가 미시 서사를 중시하는 포스트모던 서사 전개법의 변형태로, 성경 전체에 걸쳐 계시된 하나님의 큰 뜻을 조망하게 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 게다가 미시 서사 전달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탁월한 영상미와 음향효과 등으로 고품격 감성적 만족을 제공하는 대중문화 콘텐츠에 비해 흡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경험과 교훈,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사의 법칙이 크게 변화된 현재, 교회는 신자들이 성경을 끈기 있게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의 전체 범위를 조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데 이전보다 훨씬 큰 힘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계속 고루한 방식의 성경교육 체계에만 의존한다면, 성경교육과 복음화는 큰 퇴보를 보일지도 모른다.

박욱주 박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러빙워십 X 제이어스

YESHUA

yeshua

여호와께 돌아가자

HOSEA 6:1-3

LA
THE NOVO 극장
12/17 (일) 7PM
800W OLYMPIC BLVD A335
LOS ANGELES CA 90015

티켓구입처
www.axs.com

OC
애나하임 GROVE 극장
12/22, 23 (금, 토) 7PM
2200 E KATELLA AVE
ANAHEIM CA 92806

티켓구입처
www.ticketmaster.com

티켓 $50 / $40 / $30

티켓 문의 (213) 357-1565

주최 | 미주CBS방송 주관 | 러빙워십

협력기관 | 연합뉴스 TV, 미주 중앙일보, 미주 한국일보, 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CGN TV, 우리 방송